

나주시, '도로표지판' 이상한 행정 관광과 '세우고' 건설과 '철거하고'

부서간 마찰에 예산 낭비·관광객 불편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도로표지판 설치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빚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나주시 문화관광과는 시 산하 기관인 천연염색문화관 홍보를 위해 920만원의 예산을 지원, 지난해 11월 국도 1호선과 13호선변 13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천연염색문화관은 하루 500여명의 외지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나 시외곽에 위치해 있어 외지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그러나 도로표지판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가 최근 해당 표지판 6개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표지판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과는 사전 계고처분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강제 철거를 단행해 나주시청내 부서간 갈등으로 인한 힘겨부기가 아나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도로표지판 철거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통보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반면 건설과 관계자는 "사전에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건설과는 최근 국도 1호선과 13호선에 설치된 또 다른 10여개의 도로표지판도 강제 철거했다. 이들 도로표지판 역시 문화관광과가 설치한 것으로 뒤늦게 나주시 홍보 로고가 새겨져 있다.

이처럼 부서간 업무협의 부재로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완도 장보고축제 전통 노젓기 대회



지난 5일 '2008 완도 장보고축제'에서 전통 노젓기 대회가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해상왕 장보고, 바다, 섬 등 3개 테마로 나눠 역사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완도의 특성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곡성 웰빙쌀 가공 협약

영농법인 미실란-농진청, 농가 보급 확대키로

곡성군 농업회사법인 (주)미실란(대표 이동현)과 농촌진흥청 작물과 학원(원장 김재규)이 웰빙쌀 가공식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곡성군 곡성을 장선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미실란은 최근 농촌진흥청 작물과 학원과 국내 육성 고품질벼 중자 중 친환경 재배 및 발아현미 가공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선발해 농

가에 확대 보급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주)미실란과 작물과 학원은 지난해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농촌진흥청 브랜드인 고품벼, 수라벼, 새추정벼 등 탑타이스(Top-ric) 품종과 설경벼, 흑광벼, 적진주벼 및 큰눈벼 등 특수미 30여종을 웰빙쌀 후보로 선정할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육성 품종의 우수성 홍보와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품종의 고유특성을 살린 품종브랜드를 연구키로 했다.

양측은 또 발아현미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원료로 오색떡, 미숫가루 및 과자 등 웰빙 식품개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곡성=정필수기자 bungy@

국내 최대 수생식물 단지 해남군 고천암호에 조성

해남군 고천암호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생식물 단지가 조성된다.

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는 고천암호 담수호 192만㎡의 수질 개선을 위해 649ha 규모의 수생식물 단지를 조성한다.

22억 원을 들여 2010년까지 조성될 수생식물 단지에는 방수제 30km를 따라 담수호 너비 100m에 홍련, 백련, 어리연, 가시연, 수련, 참모 등 식물이 심어진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완도 장보고 축제' 체류형 관광 유도

전남대 류재한 교수팀 분석, 2·3일 관광 많아

대표적 해양문화 관광축제인 '완도 장보고 축제'가 타지역 축제보다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류재한 교수팀에 따르면 타 축제는 외지관광객 체류기간이 1일

인 반면 장보고 축제의 경우 2일 23.7%, 3일 28.8%로 나타났다.

이는 완도군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펼치는 청산도 슬로시티 지정에 비롯해 전국 최초의 '완도관광 할인 카드제' 시행, 바가지요금 추방 노력

등 차별화된 관광개발 정책이 주요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장보고 대사를 통해 완도수산물 마케팅과 바다·섬 자원을 활용한 완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여 완도 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완도 장보고축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완도항 해변공원에서 '해신의 바다에서 춤추는 빛의 환타지'를 주제로 펼쳐졌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美 뉴욕 알프레드대학 여수에 분교 설립한다

양해각서 체결

세라믹 공학분야에 권위가 있는 미국 알프레드대학이 전남에 분교 설립을 추진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투자유치활동차 미국을 순방중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6일 뉴욕에서 알프레드대 찰스 에드먼슨 총장과 '글로버시티-밸리(Gloversity-valley)' 조성을 위한 분교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알프레드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화양지구에 조성되는 글로버시티-밸리에 분교를 설립, 500명 규모의 학부과정을 두게 된다.

알프레드대는 세라믹 신소재 분야

에서 독보적인 연구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먼 리포트(The Gourman Report)' 대학평가 결과 미국내 세라믹 공학분야 1위에 올라있는 명문대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 네바다주립대학 여수분교 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세계 유수 대학을 집단화하는 '글로버시티-밸리' 조성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지사는 "알프레드대 분교 진출로 전남에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게 됐다"며 "알프레드대 분교 설립결정은 국가경쟁력 향상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모님과 함께 카네이션 받으세요"

함평나비엑스포 조직위, 800명에 화분 증정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함께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서 카네이션 화분을 받으세요"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어버이날인 8일 부모님을 동반해 엑스포장에 입장하는 가족 800명에게 선착순으로 카네이션 화분을 증정한다.

조직위는 오전 9시 개장시간에 맞춰 정문과 북문 게이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입장하는 관광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한다.

조직위는 또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오전 11시 엑스포 나비무대에서 어버이날 기념

식을 갖고 효자·효부상 시상식과 함께 부채춤, 전통 무용, 민요 열창 등으로 준비된 국악 한마당 행사를 마련한다.

또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출전한 27개 팀 1천100여명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가 오후 1시 함평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영광·함평·고창군의 3군 합창단 경연대회, 전남예술고의 부채춤, 함평군 해보면 농악단의 사물놀이 공연 등이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나비무대에서 잇따라 선보인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화순군 "국비 예산 편 만큼 받는다"

군수 등 중앙부처 수시 방문 확보 '총력'

화순군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원준 군수는 2009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5월을 '국비 확보 총력'의 달로 선포했으며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실·과장들을 진두 지휘하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4월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4차례나 방문, 장·차관과 실무국장들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전 군수는 이달 중에도 3차례나

중앙부처 방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실·과장들도 서울에 머물며 소관부서를 수시로 방문,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화순군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정부 정책의 큰 틀이 어떤 방향으로 짜여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경쟁력있는 논리를 개발, 국고 지원 반영을 약속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에는 산죽산양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선정돼 25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또 전국 최초로 농식품 지원과를 신설해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과 파프리카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 덕분에 지난달 운주사에서 발생한 산불에도 피해가 적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림청으로부터 복구비 24억원 지원을 약속받았다. 화순군은 이 복구비를 전액 사회 일자리 창출에 투입,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화순군이 내년도 국고 지원을 요청한 현안사업은 52건, 2천 834억원에 달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신형 가족사랑 캠페인

결영평가 전국 1위 기념

박정규기+884 바깥에 배려까지

30억 원도 6.56% 연리율

7.65% 연리율

관음신용협동조합

충장로 4가 광주국립 빗골편
전화 224-1883, 1921

상록스크린골프 대회

메가패스 배

신록스크린골프 1인용!!

구분	2인용	3인용	4인용
대형			
중형			
소형			

매력문의 및 접수 ☎ 361-8837